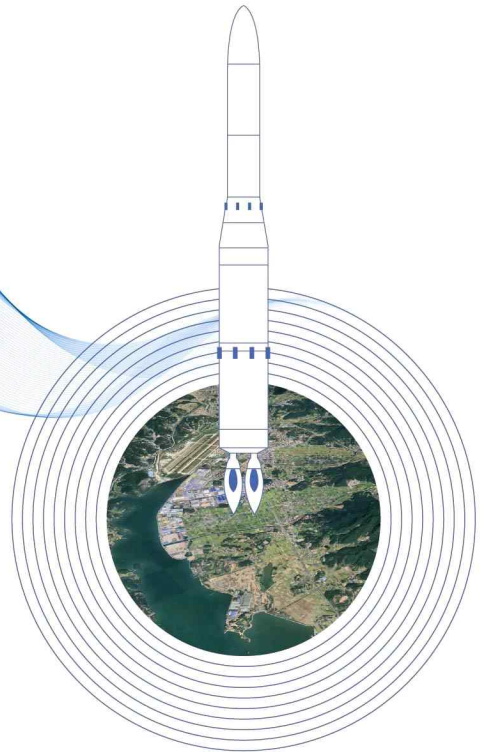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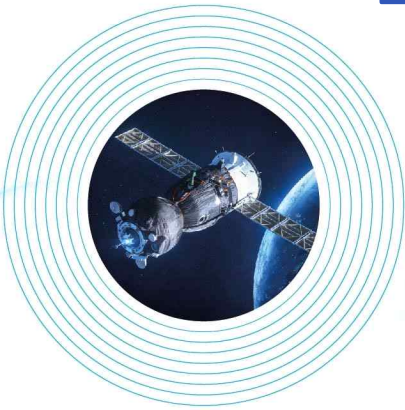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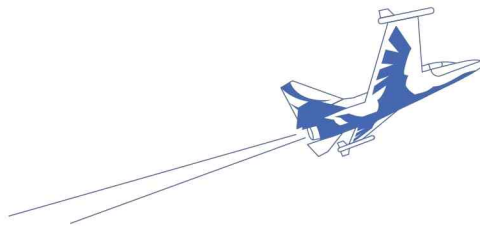


2023. 7월

우주항공산업 동향



우주항공과 미래도약
함께 합니다.



우주항공산업 동향

관내 동향

사천시,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 공모 선정

- 사천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‘2023년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’ 공모에 최종 선정돼 3년간 국비 총 73억 원을 확보했다.
-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은 경남 사천의 산업단지 생산성 제고를 위해 △항공기업별 작업환경에 특화된 5G 특화망 및 Wifi 6E 구축 △항공기 제조산업 비즈니스 협업체계 특화형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△산단 내 밸류체인 기업 간 비즈니스 협업플랫폼을 구축확대하는 사업이다.
- 이번 공모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 136억 원(국비 73억 원, 도비 11억 원, 시비 26억 원, 민간 26억 원)의 사업비가 투입되며, 제1·2일반산단과 종포일반산단 및 항공국가산단 일원을 메타버스 기반 최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킨다.
- 이 사업에는 KAI(한국항공우주산업),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, 디엔엠 항공 등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며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메타버스 협업 플랫폼을 개발·실증·운영한 뒤 관내 전체 산업단지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.

사천시, 에스씨로지스 등과 2300억 원 투자 협약

- 사천시가 (주)에스씨로지스, (주)코람코자산운영과 2천3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.
- 이번 협약을 통해 (주)에스씨로지스는 축동일반산업단지에 2천300억 원을 투자해 경남 최대의 우주항공복합물류센터를 건립하고, 50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.
-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 (주)코람코자산운용은 이번 우주항공 복합 물류센터 건립에 투자자로 참여한다.
- 사천시는 우주항공복합물류센터 설립으로 경남 서부권역 물류난 해소, 대규모 고용 창출,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.

사천시, 항공우주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산·학·관 MOU 체결

- 사천시가 지난 4일 항공우주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상호발전을 위해 연암공과대학교, 사천상공회의소, KAI제조분과협의회와 4자간 업무협약(MOU)을 체결했다.
- 이번 협약은 글로벌 항공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항공우주산업분야 맞춤형 인재 육성·배출과 함께 인력난 해소와 지역 내 취업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.
- 주요 내용은 △맞춤형 인재 양성 및 지역 내 취업 유도 △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 △최신 기술정보 교류 및 연구 협력 △공동 과제 수행 및 보유 인프라 공동 활용 등이다.
- 박동식 시장은 "인재양성의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산학관의 첫 출발이다"며 "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력 가치 실현을 통해 성공적인 목표 달성이 되었으면 한다"고 말했다.

KAI, 에어버스 A320 주날개 부품 공급 계약

-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이 유럽의 항공기 제조회사 에어버스와 A320 계열 주익 부품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.
- 계약금액은 7219만달러(약 952억원)로 작년 매출액 2조7868억원의 3.4%에 달하며 계약기간은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다.
- 이번 계약 체결에 따라 KAI는 에어버스 A320 라인의 주날개 뼈대에 장착하는 기계 가공 부품을 생산해 공급한다.
- 공급 수량은 양사가 합의한 예상치를 기준으로 산출해 향후 에어버스의 A320 계열 기종 판매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
- 한편 KAI는 지난 29일 3495억원 규모의 ‘회전익 항공기 공지통신 무전기(SATURN) 성능개량 사업’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수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.

도 내 동 향

경남도, 미래 항공우주 산업 발전 기본계획 용역 착수

- 경남도는 지난달 30일 경남도청 서부청사(진주)에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‘경남 미래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’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.
- 이번 용역은 우주항공청 사천 개청을 대비하고 이를 중심으로 항공우주산업 기반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.
- 용역의 주요 내용은 △국내외 미래항공우주산업 동향 및 전망 분석 △미래항공우주사업 관련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 △경남 미래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△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및 파급효과 분석 등이다.
- 도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미래항공우주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하여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, 신사업 등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해 기업을 지원하며, 각종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.

경상국립대, 우주항공 분야 특성화 대학으로 도약

- 경상국립대학교가 교육부 공모 '글로벌대학 30'에 예비지정 됐다.
- 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과 방위산업의 우리나라 최대 집적지인 경남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'우주항공방산 허브 대학' 혁신 모델을 제안하여 선정됐다.
- 경남도는 그동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'글로벌대학추진협의회'를 구성해 도내 신청 대학과 산업체가 연계한 대학의 혁신과 지역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과 실행 방안을 모색했다.
- 또한,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'글로벌대학자문위원회'를 꾸려 대학의 혁신기획서 자문을 통해 신청 대학을 뒷받침 하는 등 선정을 위해 대학과 함께 노력해 왔다.

김해공항 3년 만에 항공수출길 열려

- 경남도는 7월 1일부터 김해공항 국제선화물터미널 운영 재개로 하늘길을 통한 화물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.
- 김해공항 국제선화물터미널은 대한항공에서 임차 운영하던 중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4월부터 문을 닫아 지금까지 항공을 이용한 수출길이 막혀 있었다.
- 이 때문에 경남에서 생산되는 딸기 등 신선농산물, 자동차부품, 전자제품 등 항공화물을 이용해야 하는 수출 품목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하면서 신선도 관리와 물류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.
- 이에 경남도는 지난 1월부터 국토부, 국회, 한국공항공사 및 대한항공에 국제선화물터미널 운영 재개 필요성을 지속해서 건의했다.
- 그리고 앞으로도 국제선 여객노선 확대, 대형기 취항 등을 공항 활성화 과제로 삼아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하고, 도내 및 인근 지역의 항공화물을 확보해 대형항공기를 취항시켜 나갈 계획이다.

국 내 동 향

산업부-방사청, 방산 소재·부품 분야 협력 강화

-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이 「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·부품 협력 협약」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한다.
- 이 협약에 따라 양 부처는 △방산 소재·부품 기술개발 로드맵 공동 수립 및 활용, △방산 소재·부품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기술개발 결과물 활용 간 협력, △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한다.
- 이를 위해 산업부 산업정책실장과 방사청 차장이 공동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, 국방기술진흥연구소, 민군협력진흥원 등 관계기관 임원진이 참여하는 「방위산업 소재·부품 협의체」를 발족했다.
- 협의체는 우선 부처 합동 방산 소재·부품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개발 우선순위를 정해 개발을 촉진하는 등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.

방위사업청 대전시대 개막

- 방위사업청이 지난 3일 대전으로 1차 이전을 마쳤다.
- 1차 이전 대상은 청·차장을 포함 기획조정관, 조직인사담당관, 국방기술보호국, 방위산업진흥국 등 주요 정책부서 인원 238명이며 2027년까지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.
- 경기도 과천에 있던 방사청의 대전 이전은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으로 제시된 뒤 정부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되면서 추진됐다.
- 방사청은 방위산업 컨트롤타워 기관으로 연간예산 17조 원에 1600여 명이 근무하는 조직으로,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.
- 또한 방위산업 전후방 기업유치, 인구 증가와 인재 유입, 지역산업과의 상호협력 효과도 기대된다.

해 외 동 향

에어버스, 파리에어쇼에서 신형항공기 공개

- 에어버스가 지난달 19일(현지시간)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전시회인 파리에어쇼 개막일 날 A321XLR 기종을 처음으로 공개했다.
- XLR 기종은 2019년 출시 계획이 발표될 때부터 최대 항속거리가 8,500km에 달하고, 연료 소모가 보잉 757 기종보다 30% 줄었다는 에어버스 측의 설명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.
- 이 기종은 2024년 상용 출시를 앞두고 아메리칸항공, 유나이티드항공 등과 대형 계약을 체결했으며 제트블루, 인디고, 에어아시아 등 저비용 항공사도 발주를 넣은 상태다.
- 국내 항공업계 관계자는 “항공사들에게 고효율 항공기 도입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필수”라며 “기단의 현대화를 위해 신형기를 도입하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유럽 아리안5 로켓, 마지막 발사

- 유럽의 대형 우주 발사체인 아리안 5호 로켓이 5일(현지시간) 발사를 끝으로 27년에 걸친 임무를 마무리했다.
- 높이 53m의 3단 발사체인 아리안 5호 로켓은 유럽의 다국적 항공기제조업체인 에어버스와 프랑스 항공우주 업체 사프란의 합작사인 아리안 그룹의 대표적인 상업용 우주 발사체다.
- 지난 1996년에 이뤄진 첫 발사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후 117회에 걸쳐 유럽을 대표하는 대형 우주 발사체로 역할을 하면서 인류 최초의 혜성탐사선 '로제타'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등을 우주로 보냈다.
- 아리안 그룹은 지난 1973년 개발에 들어가 1979년 첫 번째 발사체인 아리안1 로켓을 발사했으며 현재 차세대 아리안6 로켓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상업용 발사에 투입할 계획이다.

작성일	2023. 7. 18.(화)	보고일	2023. 7. 19.(수)
부서명	항공경제국 우주항공과	담당자	김난주(055-831-3473)